

한일합섬 공장터 환경오염 “범벅”

마산시, 유류 오염지역 4.7% 달해 ... 지하수에서는 청산가리도 검출

대규모 아파트와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경남 마산시 양덕동 옛 한일합섬 터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 결과, 일부 토양에서 기름오염이 추가로 발견되고 지하수에서는 시안이 검출됐다.

마산시에 따르면, 태영과 한림건설이 시행하는 사업부지에 대해 대한토양환경연구소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 토양환경평가보다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 등 기름성분이 토양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확인된 유류 오염면적은 전체 터 28만㎡ 가운데 4.7% 수준인 6166㎡로 1차 토양환경평가 결과에 비하면 1300㎡가 늘었다.

지하수 조사에서는 3개 지점에서 흔히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산칼륨(KCNO)이 0.01-0.03ppm(먹는물 기준 0.01ppm)으로 미량 검출됐다.

대한토양환경연구소는 과거 한일합섬 아크릴원사 제조 때 첨유원료와 부원료를 합성해 중합체를 만드는 공정에 촉매제로 시안산칼륨이 사용되면서 일부가 검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에서 토양분야는 지난 토양환경 평가보다 53개 지점과 94개 시료가 늘어난 189개 지점에 394개 시료가 채취됐으며 지하수 분야는 1차보다 5개 지점이 늘어난 25개 지점에 걸쳐 정밀조사를 벌였다.

마산시 관계자는 “토양·지하수 조사가 지난번보다 확대돼 일부 유류오염 지역이 추가되고 시안이 검출되기도 한 것 같다”며 “조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정화조치 명령을 시행사에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사측은 다음 주 토양 정밀조사 결과 및 정화처리계획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옛 한일합섬 터에는 26채 3859가구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18>